

보도자료

탈시설-자립생활을 위한 <꽃님 기금>

실무담당 단체 연락처 : 노들장애인야학 X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화_02-766-9101 /팩스_02-2179-9108/[메일 nodeul@daum.net/](mailto:nodeul@daum.net)
[/홈페이지_footact.org/](http://홈페이지_footact.org/) nodl.org

수신	각 언론사	배포일자	2026년 8월 19일(수)
담당	한명희(010-3170-5909)	페이지	총 2매

선심 탈시설 20주년 기념행사 "스물, 꽃님"

기쁜일보다 슬픈일이 더 많아,
그래도 나와서 사는게 행복.

- 일 시 : 2026년 8월 20일(목) 오후4시
- 장 소 : 노들장애인야학 4층 (종로구 동숭동 소재)
- 주 최 : 노들장애인야학,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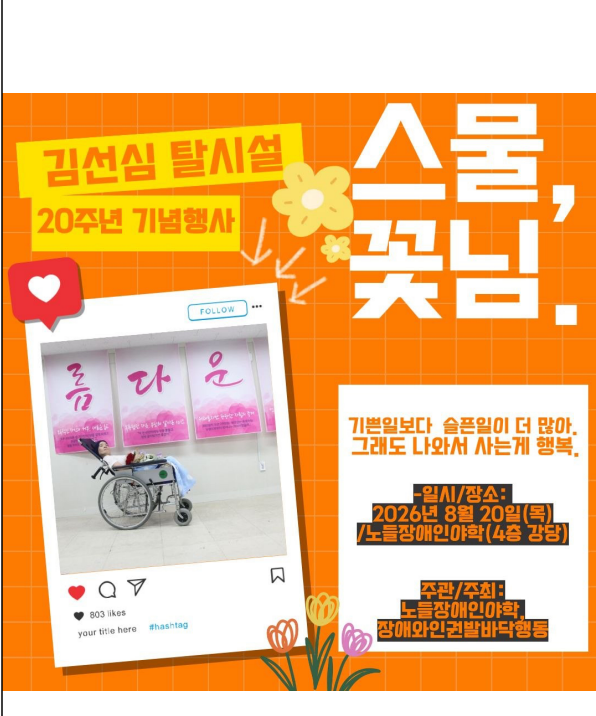
○ 작년 2016년 ‘아름다운 역전’을 준비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꽃님(가칭). 중증의 뇌병변 장애여성입니다. 그녀는 38년을 가족들 안에서 슬픔과 부담의 존재로 살아야 했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의 눈물을 볼 수 없어 장애인시설에 입소하게 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자립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2006년 8월 20일,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 전남의 한 시설을 박차고 나와 서울 종로구에서 자립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활동보조인제도도 없을 때, 탈시설 장애인이 살 수 있는 주택도 없을 때 그녀의 ‘시설탈출 프로젝트’는 그야말로 자신의 삶을 내던져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10년의 우여곡절을 말로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그녀가 이제는 서울 가양동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장애인야학을 다니고, 화분을 키우고, 활동도 하며 자신의 삶을 꾸려 가고 있습니다.

○ 그런데 한꽃님씨는 그동안 자신의 자립을 지원했던 두 단체,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과 <노들장애인야학>에 후원금을 주려고 남몰래 8년이나 돈을 모았습니다. 자그만치 20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았던 그녀가 자린고비라는 별명을 얻으면서도 기필코 후원금을 주고 싶었던 그녀. 그녀는 자신이 얻은 자유를 혼자만 가질 수 없다며, 활동가들을 불러 “탈시설을 지원”하는데 쓰라고 기부계획을 알려왔습니다. “가서 다른 장애인도 데리고 나와, 가는데 차비 써. 니들이 나를 데리고 나왔듯이, 나 같은 사람들 한명이라도 더 데리고 나오라고 주는 거야.”

○ 우리는 그녀의 아름다운 기부의 뜻을 받아, 이 기부금을 <꽃님 기금>이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

너가 처음 사회로 나와서 스스로를 불렀던 별칭 ‘꽃님이’. 시설에서 나와 보니 세상 사람들이 자기만 쳐다보더라는 차별적 시선을 거부하기 위해 자기에 붙였던 별칭 꽃님이.

장애인도 쓸모 있는 인간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던 꽃님의 탈시설이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스물, 꽃님’의 행사(26.08.20)자리에 함께 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김선심 탈시설 20주년 기념행사 "스물, 꽃님": 기쁜일보다 슬픈일이 더 많아.그래도 나와서 사는게 행복 -일시/장소: 2026년 8월 20일(목) 4시 /노들장애인야학(4층 강당) - 주관/주최: 노들장애인야학,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 후원계좌: 국민은행 488401-01-202282(예금주 : 노들장애인야학) <참여신청하기>: https://forms.gle/aVJ6JNNzH4WTxKvA6 선심님이 함께 준비한 따뜻한 밥한끼가 준비되어있습니다. 행사참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전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참조기사>: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33
--	--

○ 2026년 8월 20일, 꽃님씨의 탈시설 20년을 축하하며 열리는 행사의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참고 자료> 신동아 2016. 8월호 기사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2000만 원 기부한 ‘탈시설’ 장애인 1호 한꽃님 씨
“쓸모 있는 인간이 되고 싶었어”

구술 한꽃님, 기록 및 재구성 유해정

[글쓴이 주] 한꽃님(가명, 52)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에서 지원한 ‘탈시설’ 장애인 1호다. 2016년 8월은 장애인 시설에서 나오지 꼭 10년이 된다. 꽃님 씨는 이를 기념해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도와준 ‘장애와 인권 발바닥행동’과 ‘노들’에 2000만 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일본서 장애인들을 집단 살인한 사건 봤남? 살인범이 웃는데, 날 보고 비웃는 거 같았어. ‘장애인들은 쓸모없는 인간이여. 그러니 죽어야해’라면서. … 가족들도 그랬어. 언제 죽냐, 너는 가족들한테 짐만 되는 사람이다… 나는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었어. 이 세상에 쓸모없는 인간이 어디 있겠냐, 돌맹이 하나도 쓸데가 있으니 존재하겠지. 나 같은 중증장애인들은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하니까, 나는 쓸모 있는 인간이 되고 싶었어. 그래서 기부를 하는 거야.”

“내가 그 돈, 정말 눈 감고 귀 막고 살며 모았다.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가고 싶은 데 안 가고. 진짜로 2000만 원이면 나 같은 중증장애인한테는 상상도 못할 거금이야. 시설에서 나왔을 때 한 달에 국가보조금이 40만 원이었는데 거서 월세 35만 원씩 내면 5만 원이 남잖아. 그 돈 가지고 먹고 살았지. … 집 보증금 마련하서는 8년간 매달 20만 원씩 모았다. 내가 사람들 도움으로 사는 거니까 나도 빚 갚으며 살아야한다,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다…”

“나는 시설에 살 때 개돼지나 마찬가지로 있었어. 주는 거 먹고, 자라면 자고…. 개돼지나 주는 거 먹잖아. 사람은 먹고 싶은 걸 먹고. 근데 나 이거 먹기 싫으니 안 먹을라요 그 말도 못하고, 나 이거 먹고 싶은데 주세요 소리도 못하고. 근데 시설 밖에선 단 하루라도 가고 싶은 데 가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자유를 느끼고 살잖아. 나만 이렇게 행복할 수 없어서 내가 활동가들한테 쫓겨. 한 사람이라도 더 시설 밖으로 데리고 나오는 데 쓰라고. 다른 사람들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라고.”

“태어나서 38년을 방안에서만 살았어. 어머니랑 형제들이랑 TV만 보고 산거야. 바깥세상은 상상만 했지. 손님이라도 오면 방안에서 며칠이고 지냈어. 식구들이 내가 창피하다고 나오지 말라고 해서. 아버지 장례를 집에서 치렀는데 그때도 방안에만 있었어. 형제들 결혼식 때도 못 가봤어. 가고 싶다는 생각조차 못하고 살았지. 가족 간에 서운한 거? 그걸 어떻게 다 말로 혀. 언니들이 시집가서 가끔 친정이라고 한 번씩 왔다 가면서 나한테 뭐라고 그랬는지 아냐? 어째 안 죽냐, 왜 안 죽냐…”

“어렸을 때부터 나는 시설로 가려고 했어….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도 내가 뱉혀서 눈도 못 감고 가실까봐…. 시설을 알아보니 나이가 많다,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받는다, 재활되는 사람만 원한다 그러면서 다 거부하대. 한군데만 받아준다는데, 지적장애인들만 있는 시설이었지. 그거라도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2002년 10월 20일에 들어갔지. 38살이었는데 첫 외출이었어.”

“한번은 핸드폰을 원장 모르게 가지고 있다가 들켰어. 원장이 핸드폰을 열어봐. 내가 물었어. “왜

남의 것을 열어보세요?” 원장이 TV 리모컨을 던져서 박살냈지. 그래놓고 “기분 나쁘면 나가시오. 나도 댁 같은 사람 못 데리고 살겠소”…. 얼마 후에 원장이 원생들이 동네사람들한테 자기 욕하고 다닌다면서 나를 지목하더라고. 그러면서 나를 데리고 살기 싫다, 어디로 보낼 수만 있다면 보내고 싶다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 속은 타들어 가는데 사람들이랑 말이 통하지 않으니 답답하고, 미치겠더라. 미쳐가는 기분 아남? 거서 3년을 살았는데 꼭 300년을 산 기분이었지. 유리병 안에 갇힌 그런 기분이었어.”

“시설 실태조사를 다녀갔던 발바닥 활동가들한테 연락했지. 시설에서 나가고 싶다, 나 좀 도와 달라. 원장이 내가 나간다고 하니까 나가긴 어디를 가냐고, 나가면 죽는대. 나는 아니다, 나가서도 살 수 있다…. 사실 죽을 작정을 했으니 나왔지, 시설 밖에선 굶어죽는다고 생각했어. 나는 이 세상이 너무 두렵고 무서웠어. 근데 나와 보니 이 세상이 무섭고 두려운 것만은 아니더라고. 개돼지처럼 살다 보니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는지 몰랐던 거지.”

“2006년 8월에 나와서 고생 많이 했어. 그때는 활동보조도, 자립생활 체험홈도 없었어. 내가 시설에서 나와 처음으로 혼자 살겠다고 한 사람이니 나를 데리고 나온 활동가들이라고 뭐 대책이 있었겠남? 사람들에게 미안하면서도 서운하고. 이런 고생을 하려고 나왔나 싶고, 비참해 죽고 싶고. 근데 여기서 포기하면 죽도 밥도 안 된다 싶고….

하지만 정말 무서웠던 게 뭔지 아남? 혼자 있는 거였어. 나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잖아. 아프면 어떻게 하지? 도둑이 들면? 불이 나면? 다리에 쥐가 나도 움직이지 못하니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지. 이러코럼 있다 죽으면 누가 알기나 할까. 며칠이고 몇 달이고 있다 발견되는 건 아닐까 싶고….”

“근데도 왜 혼자 사냐고? 자유라는 것이 너무 좋다. 누구 눈치도 안 보고, 강요도 안 받고…. 노들에서 공부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사람 사는 거 같아. 나는 숨 쉬는 거 빼놓고는 활동보조가 필요해. 그러니 제발 사람들이 활동보조 가지고 장난 좀 안쳤으면 좋겠어. 장애인들 생명이 달린 문젠데 쫓다 뺏었다, 등급 나눠서 준다 못 준다…. 처음엔 활동보조 시간이 너무 적어 1분이 금이었어, 금. 지금은 싸워서 시간은 더 많은데 나 같은 중증은 힘들다고 활동보조인들이 오지 않으니 대책이 없어…. 그래도 어찌겠남. 외롭고 힘들어도 혼자 사는 무게를 지고 가야지. 나 같은 사람들은 사는 게 굳은살이니. 그래도 시설 밖에 있으니 나는 행복한 거야. 내가 시설에서 나온 지 딱 10년 됐는데,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 첫째도, 둘째도 장애인들도 쓸모 있는 인간이다. 필요 없는 인간이구나, 저런 인간들은 사람들은 귀찮게 한다, 우리 주머니를 털어간다 그런 눈빛. 거리로 나서는 순간 일상적으로 느끼지. 근데 세상만물 쓸모없는 게 어디 있겠냐? 나라고 이러코럼 태어나고 싶었겠냐?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다. 당당하게 하고 싶은 거 하고, 가고 싶은 데 가고, 하고 싶은 말 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겠남? 쓸모 있는 인간으로 같이 살면 안되겠남?”

-이상